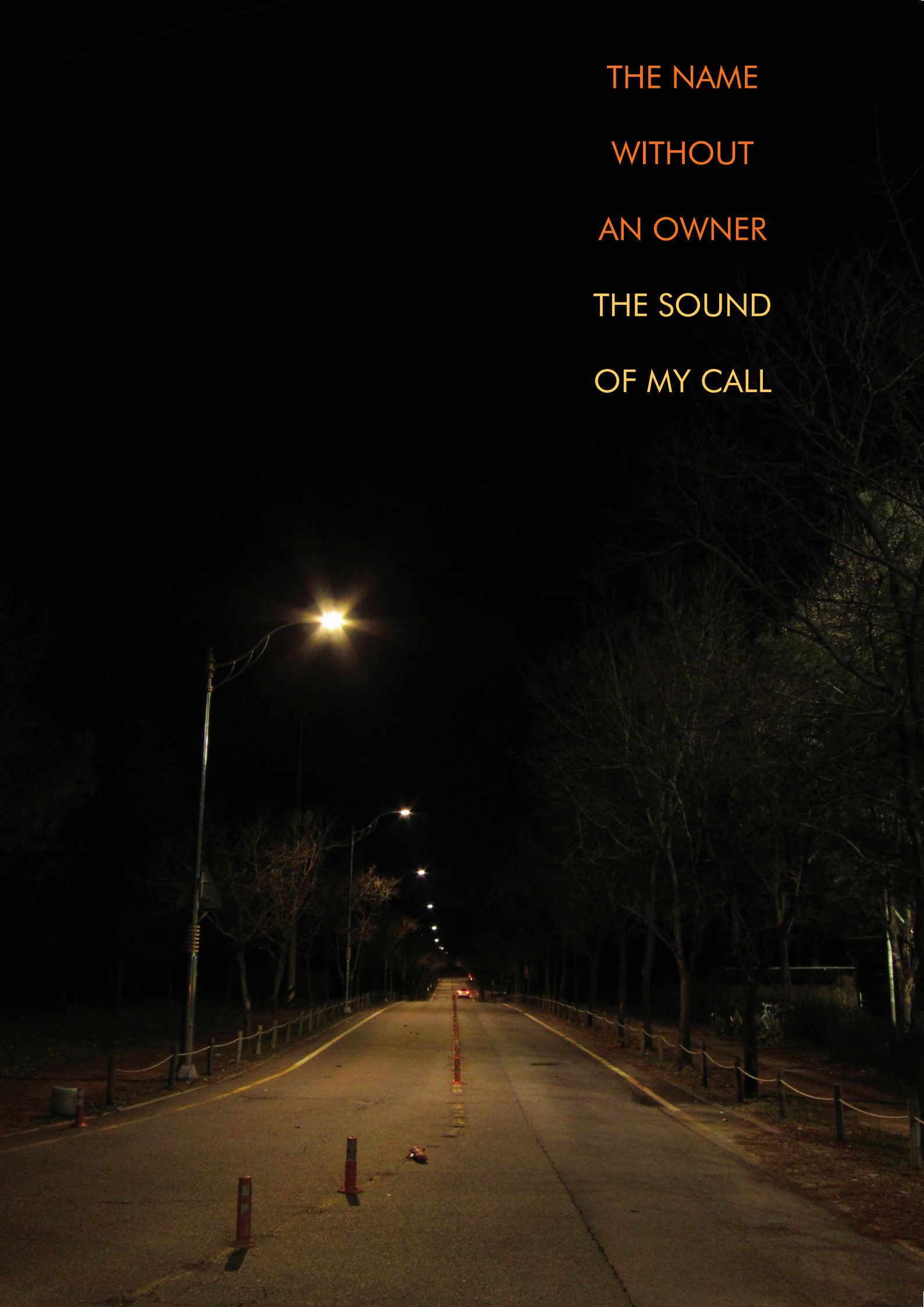


THE NAME  
WITHOUT  
AN OWNER  
THE SOUND  
OF MY CALL



The name without an owner, the sound of my call

Dear Mr. Kim Sowol,

I had the chance to read your poems and was very moved, especially by “calling out to the dead” my first reading rendered the bawls of a lover after the loss of his beloved, but after a couple of readings, one perceives the agony in the rupture of family, of country, to an end in dissipation. Coming from Taiwan--and not unable to openly claim my country’s name--this poem stirs my heart, and brings me to sobs.

I recall our trip to Busan in November. One night, Sarah suggested we stroll through the Yeong Island lighthouse(Taejongdae lighthouse) at night, half-jokingly that we would probably meet a nameless ghost, while Raymond and Tim happily agreed in unison. Having been visited by ghosts in my dreams, I refused. I would like to share this poem with Sarah, Raymond, and Tim because of this experience, and its fortuitous intersection in our work and thinking.

During her residency, Sarah Duffy has had great interest in the connection between Korea’s islands and Korean history. Shortly after starting her residency, she went alone to Ganghwa Island to visit and film, and more recently to Jeju Island for more materials and to expand the dimensions of her work. Her actions seem to be extensions of her performance *Song to The Siren* (2017): She is the embodiment of the siren, and also the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the myth. On her pursuit for the phantoms of history and myth, she whisks her sword and walks forward again and again. Have you heard her footsteps towards you? Have you responded to her ca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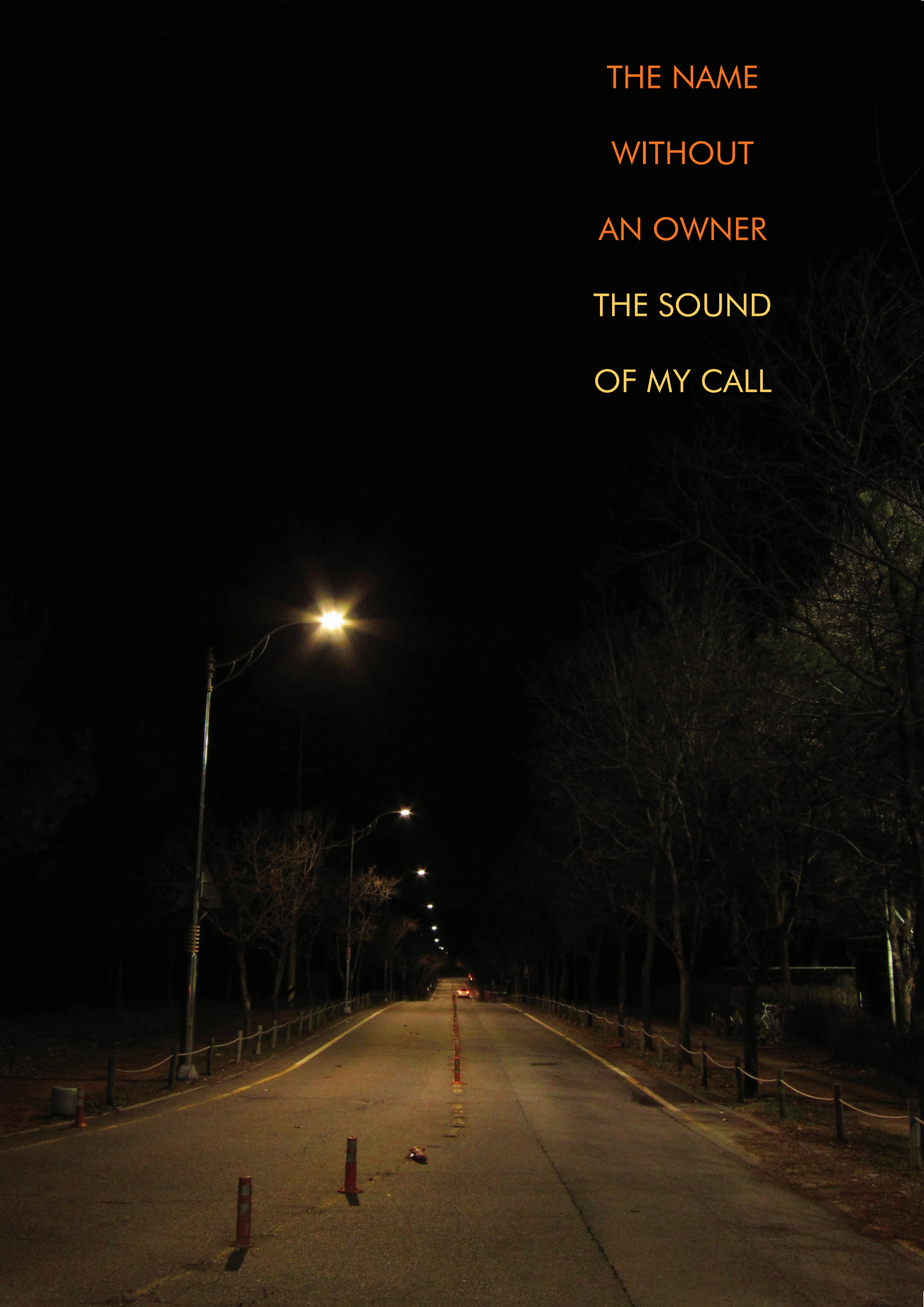
Raymond Gandayuwana has built a bench for you, a bench for one with its quiet, compact space. The bench resembles the monumental structure of Sewoon Sangga and also referring to the proportion of Korean traditional wood furniture. The artist chose mixed media combining both analog and digital designs for this work. You can sit and rest here, and still your heart. Indonesia has also experienced a long history of colonization. He understands your pain in his heart!

Tim Loehde, who has a keen sense of sound, wanted to capture and reproduce the traces of the phantoms of history in Pansori, but in this exhibition he starts with the quotidian in a highly standardized, modern scene like Homeplus. Tim noticed and changed the sound track of the store’s background music that most people overlook, hearing a hidden message in it. There are cracks in the walls, and ghosts slip in through those cracks. Tim’s work underscores a break to modern, standardized life, and ghosts are a metaphor against the monolithic and standardized.

I hope you are with us, and look forward to years of calm and beauty

Jia Zhen, Tsai  
2018/12/09

THE NAME  
WITHOUT  
AN OWNER  
THE SOUND  
OF MY CALL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김소월 선생님께,

선생님의 시를 우연히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초혼’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의 절규 또는 넋두리에 대한 것인 줄 알았지만 여러 번 읽다 보니 가족과 조국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심적 괴로움, 고통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만에서 나고 자라 타이완을 타이완이라 부르지 못하는 제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려왔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지난11월의 부산 여행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밤, 사라가 태종대에 있는 영도등대를 산책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이름 모를 귀신이라도 만나면 어찌냐며 농담 반으로 이야기했죠. 레이몬드와 팀은 신이 나서 좋다고 동의했고, 꿈에서 가위에 자주 눌리던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 저는 선생님의 시를 사라, 레이몬드 그리고 팀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야 말로 우리가 하는 여러 작업들과 생각들이 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 더피(Sara Duffy)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동안 한국의 섬들과 한국의 역사간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레지던시 초반에는 혼자 강화도에 가서 촬영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더 많은 자료수집을 위해 제주도를 찾아 작품을 다방면에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사이렌에서 모티브를 얻어 고대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그녀의 행위공연 *Song to The Siren* (2017)의 연장선을 보는 듯 합니다. 사라는 역사와 신화에 등장하는 각종 영혼과 유령들을 연구하며 그녀만의 검을 휘두르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로 다가가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니면 이미 그녀의 부름에 답하셨는지요?

레이몬드 간다유와나(Raymond Gandayuwana)는 선생님을 위한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고요하면서도 비좁은 벤치로, 세운상가의 조형물을 연상시키면서도 한국 전통 목재가구의 아름다운 비율을 나타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아우르는 혼합매체를 이용하였고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레이몬드는 오랜 식민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의 고뇌와 아픔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뛰어난 소리감각을 지닌 팀 로이드(Tim Loehde)는 역사상 유령들의 흔적을 판소리로 담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지극히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인의 규격화된 삶을 상징하는 홈플러스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매장내 배경음악 ost를 찾아서 이를 변형한 후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벽에 있는 균열들 사이로는 영혼이 몰래 들어와 자리합니다. 팀은 진부함 및 규격화와는 대비되는 유령이라는 은유를 통해 단조롭고 표준화된 현대인의 삶과의 단절을 고합니다.

선생님께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내일을 기약해 봅니다.

지아젠, 차이